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추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21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기획팀장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김영분 ☎440-57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민생특위 생활안전대책반 시민안전 파수 - 여름철 풍수해·빈집 안전조치를 위한 현장 전문가들과 생생(生生) 회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1일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생활안전대책반(반장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 회의를 개최해 반지하주택 침수대책 등 여름철 풍수해 예방, 폭염대책, 빈집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특위 생활안전대책반은 시민안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재난안전 현장 전문가 7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돼 재난안전 관련 민생 이슈에 대한 주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이슈별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을 발굴하는 체계로 이번 제1회 회의는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 물막이판 1,574건, 역류방지밸브 5,160건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월지구 등 6개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 중

이다. 또한 개폐식 방범창 지원 및 빗물배수펌프장 사전점검과 상습 침수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재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폭염 예방을 위해서는 2023년 재난관리기금 8억5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5천만 원을 투자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219개소를 신규 설치해 총 2,185개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등 총 1,324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폭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빈집안전대책으로는 2023년 빈집실태조사 후 2024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예정으로 철거 대상 빈집 정비예산 우선 확보 및 재난안전사고 위험 빈집의 직권 철거를 위한 강행규정 마련을 제안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대책반은 향후 수시회의를 개최해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실무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회의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시민 생활안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찬훈 대책반장(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향후 생활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